

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바우하우스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정신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방안을 예술의 본질에서 찾았다. 예술은 실제 생활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바우하우스 선인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표현해 살롱예술로 잃어버린 예술의 건설정신을 회복하겠다고 공표한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집을 짓다'라는 뜻의 바우하우스는 본래부터 근원이 닿아 있는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추구한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중심이 돼 대량생산이 이뤄졌지만 획일화된 대량생산체제로

예술은 집을 짓는 정신에 있다

기술의 창조성은 위축된 시절 바우하우스 학생들은 기초예술수업을 이수한 후 그것을 실제에 응용하는 기술 교육을 받았다. 예술적 상상력에서 도구와 예술작품이 산출됐던 점을 복구하고 일이다. 또 바우하우스는 각 예술장르의 융합을 모든 교육과정의 바탕으로 삼았다. 순수하고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만든 예술계의 폐쇄성을 극복했다. 형태가 기능을 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작용을 창출한다는 뜻을 특히 강조하는 바우하우스는 모든 형태는 기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성능을 높인다고 봤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자연의 본질을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바우하우스는 상상력을 묶어버리는 현란한 장식을 제한하면서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길을 틀었다. '생명이란 불필요한 꾸밈을 제거하는 작용'이다. 예술과 기술의 통합은 그렇게 실현됐다. 형식 곧 표현이 내용

이 되는 예술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아트플랫폼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선보였던 바우하우스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오중우'의 얘기가. 책은 본질적인 예술이 기존의 경직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의 질서를 이끌어내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호기롭게 주장하지만 정작 내부에 집단주의 성향을 깔고 다른 경향을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중오와 파괴를 낳을 뿐이다. 진짜예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최근 들어 날카롭게 불거진 제주아트플랫폼사업 역시 주장하는 예술인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훗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막대한 수익을 낳지만 그 가치를 두고 관점이 다른 평가를 받는 건축물들이 있다. 프랑스혁명에 도화선이 된 베르사이유 궁전이거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텔링만 남기고 퇴출되는 계기가 됐던 왕, 샤 자한의 무덤 타지마할, 부패한 교주의 민낯을 드러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성베드로 대성당,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다 외국의 침략을 방조케 했던 경복궁 등이 그것이다. 건축물들이 당시 실정에 맞춘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민생을 위한 뉴딜사업의 일환이었다면 인류역사는 결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의 표면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진정 살아있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한 '진(眞)'을 새겼을 것이다. 나랏돈을 함부로 굴리다 코로나정국에 헬세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인 제멋선 건물 매입에 따른 논란의 경우도 그 시작부터 예술의 본질에 충실했다면 관(官)에 불어 기생하는 뒷골목 타짜패거리들의 짓거리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설

넉달만에 또 수돗물 유출... 이럴 수 있나

전국 최고의 먹물 청정지역 제주가 넉달여만에 또다시 경악할 수돗물 유출사태를 맞았다. 작년과 같은 지역에서 동일 유출원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되면서,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다. 다시 터진 수돗물 유출사태는 지난달 25일 보목동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나온 유출의심 개체 발견 신고로 비롯됐다. 크기 0.1mm 정도의 작은 유출의심 개체는 모두 5마리였다. 도상하수도본부가 해당 가정집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과 여과시설, 소화전 등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14곳에서 유출 의심 개체들을 발견해 총격을 쳤다. 해당 유출의심 개체들은 국립생물자원연구소로 보내져 정밀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제주민 등 항일유적에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

유출가압장치(수압 높여 고지대로 물을 보내는 시설)의 정밀여과 장치에 영향을 줘 이물질이 못걸러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원인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먹물물의 송수관 파열소식을 사태 후야야 인지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상시 시민들이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 상수도 관리시스템의 '기본'을 너무 소홀히 해 왔다는 얘기가 다름없다. 작년 10월에도 강정정수장 계통 수돗물이 갈따구 유출이 발견되면서 큰 소동을 벌였었다. 당시 도지사가 나서 공식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그친서 유출 의심 개체들을 발견해 총격을 쳤다. 해당 유출의심 개체들은 국립생물자원연구소로 보내져 정밀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제주민 등 항일유적에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 상하수도본부측은 송수관 파열로 흘러나온 물과 자갈이

열린마당

안전문화운동을 생활화하자



김 상 국 제주시 도두동 주민자치팀장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을 우리의 주요한 행동양식으로 만들어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시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에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안전문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원이 참석했는데,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다. 캠페인을 전개할 제주시민속속일시장으로 출발했다. 코로나19 여파와 추운 날씨에도 예상이 벗어나지 않고 오

일시장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사무실 앞에서는 벌써 단원과 직원들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홍보 책자와 휴대용 시장바구니를 나눠 주고 있었다. 추운 날씨와 자그마한 선물 덕분인지 홍보는 빨리 끝날 수 있었다. 요즘 SNS를 통해 우리동에서 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무지개도로가 있는데, 주말이면 관광객 및 도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문제는 사진촬영을 위해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차도로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데 있다. 사진 한두장과 생명을 맞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서슴치 않고 하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동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서 지구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틈틈이 현장에서 직접 계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안전문화운동은 계속돼야 하며,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4·3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 달라"

원 지사 '소통의 날'서 주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주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지난 2월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4·3유족회와 공직자, 온 도민의 노력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

이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마련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고대리기자

주요 현안처리에 역할 기대

○...지난 1일자로 제주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 13명이 승진 임용돼 2일 임용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주변에서는 조직운영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 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5주간의 교육수로와 함께 승진한 대상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

시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 의결자들을 정식 승진임용 함으로써 제주시 조직운영 및 주요 현안사항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아이들 위해 방역 준수를"

○...2일 도내 모든 학교가 새학년 1학기 학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상의 방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

이 교육감은 이날 "새 학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내고 "만 18세 청소년과 아동은 백신 접종 계획이 미정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 이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자가 진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학교와 공유해달라"고 요청. 오은지기자

항일유적 방치된 채 관리안돼 안타깝다

3·1절을 보내면서 우리 선조들이 펼쳤던 항일운동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항일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저항운동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주에서 발생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항일유적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 김장환의 생가터는 초가 형태만 알 수 있을 정도로 흉물로 전락했다. 마을 차원에서 만세운동 관련 현장에 표석을 세우고 기념하고 있을 뿐 당국의 관심은 미흡하다. 또 마을에는 조천야학당터를 비롯 항일현장이 산재해 있지만 활용 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안타치피 법정사 항일운동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3·1만세 운동보다 5개월 앞선 1918년 10월 7일 일어난 제주도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이 때 문에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미 성정과 능선에 위치한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를 보라. 달랑 안내문만 세워져 있을뿐 보호책도 없이 줄로 주위를 두른 채 방치되고 있다. 기반 위의 석축은 거의 허물어져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대로 계속 놔둘 경우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조천만세운동 관련 현장도 마찬가지다. 이 운동을 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중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수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시정소식
취약 계층 노인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상적인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내용 : 안전 확인,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운운·우물청 어르신을 위한 상담, 집단활동 등 특화 서비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5)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 2021. 2. 25. (목) ~ 3. 11. (목) (평일 09:00~18:00)
모집유형
주택유형 위치 주거형태 주택수 거주유형 모집인원
지원주택 오라동 1.5룸 2호 1인 1실 2명
\* 주거 임차료 : 5월까지 제주시에서 지원, 이후 기간 입주자 부담
\* 기타 공공금(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및 생활비 등 : 입주일부터 입주자 부담
거주기간 : 입주일 ~ 2021. 12.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의 장애인
-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 욕구가 있으며 입주 기간 생활비 부담이 가능한 자
- 주택에서 제공하는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 생활이 가능한 자
- 공동생활(2인)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일상생활능력(ADL)이 있거나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자
운영기관 :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751-51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728-3041-3)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농작물관리요령 및 병해충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봄 비료 주기: 3월 상순 ~ 중순
정지전정
- 수세가 강한 나무는 3월 상순부터 절단전정 위주 강전정
- 수세가 약한 나무는 4월 상순이후 복합전정으로 결과모지 확보
만감류
정지전정: 2월 하순 ~ 3월 중순. 가운재배는 가운 7일 전 완료
온도관리: 발아가 시작되기 전 저온 피해 예방 관리(2℃)
- 비기림은 지면온도로 관리하며 조기발아 되지 않도록 관수 중단
단호박
파종: 2월 하순 ~ 3월 하순(정식 30~35일 전), 40공 육묘상자에 파종
육묘상 온도관리: 파종 후(주간 30℃, 야간 18℃ 이상)
발아 후(주간 22~24℃, 야간 15~18℃)
\* 육묘기간 중 10℃ 아래로 떨어지면 발아가 균일하지 못할
밀 거름: 퇴비 1.500, 질소 17, 인산 75, 칼리 14g/10a
멀칭작업: 정식 1주일 전 멀칭작업으로 토양온도를 높여 줌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총채벌레 등
온도관리: 야간 최저온도 파종후 12℃ 이상, 영하계 8℃ 이상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마늘: 노균병, 세균점무늬병, 흑색썩음균핵병, 잎마름병, 뿌리응애
양파: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성과(760-755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단체반수시모집
즐거운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탈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 지루박, 버프스, 트로트, 탱고, 민요
시간 :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댄스스포츠 단체반 : 자이브, 롬바, 왈츠
시간 :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6시
시간 : 화요일 오후 7시 ~ 오후 8시
자격 :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탈라댄스스쿨
중앙터미널 2층 ☎753-5308